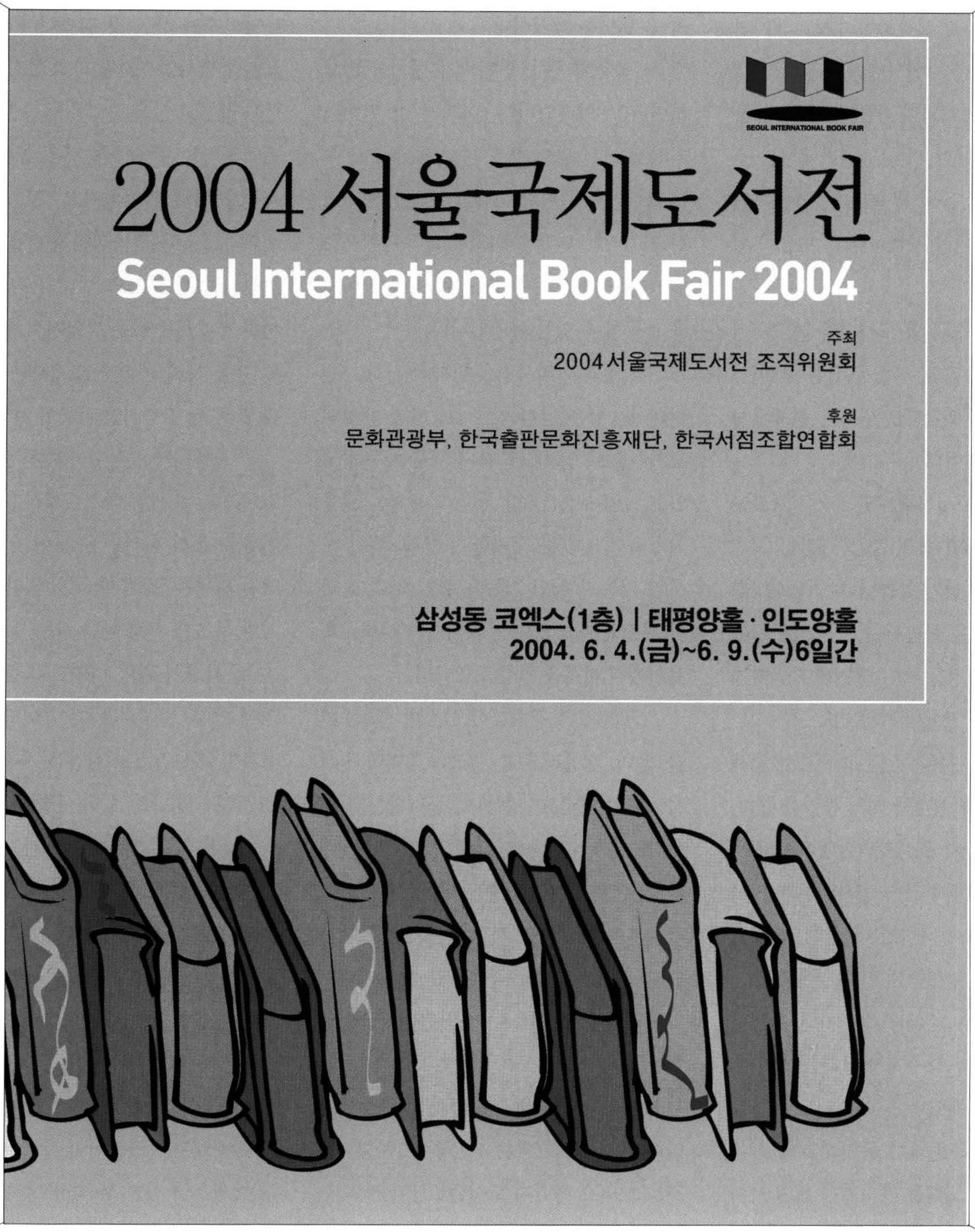

10회 맞아 전시공간 대폭 확대, 명실상부한 국제도서전으로 거듭나기

국제도서전으로 격상된 후 올해로 10회를 맞는 서울국제도서전이 오는 6월 4일(금)부터 9일(수)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서울국제도서전조직위원회(위원장 이정일)는 최근 '2004 서울국제도서전' 브로셔를 발행, 출판사와 출판문화유관단체에 배포하고 오는 4월 16일까지 참가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관련기사 154쪽).

2004 서울국제도서전의 특징은 1개 홀만을 전시관으로 썼던 지난해까지와는 달리 코엑스의 태평양홀과 인도양홀 등 2개 홀을 전시관으로 확대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서울국제도서전이 회를 거듭함에 따라 관람인원이 늘고 참여 출판사의 전시 규모가 대형화하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이번 도서전에서는 '프랑크푸르트도서전 및 2005 주빈국 홍보관'을 별도로 마련해 2005년 독일에서 펼쳐지는 '문화올림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도서전에서는 또 단행본, 아동교육도서 전문관, 국제관, 우리사 대표 출판물전 등의 기본전시 외에 각국의 금서를 전시함으로써 금서가 사회사에 미친 의미를 조명토록 할 예정이며 볼로냐 라가치상 수상작과 웰빙 관련 책들을 특별전시할 예정이다. 또한 전자책산업전 북아트전 인쇄전 잡지전 등의 협력전시를 통해 도서전의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정일 위원장은 도서전 관람객 증가와 국제적 관심 고조에 따라 주최를 예년과 달리 '서울국제도서전 조직위원회'로 확대개편했다고 밝히고, 출판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책읽는 분위기 확대를 위해 출판문화계 및 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직위는 참여폭 확대를 위해 전시 부스 임대료를 2003년보다 낮추고, 협찬을 유치해 참여사들의 현장경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2004 서울국제도서전은 전시공간의 대폭 확대에 따라 규모면에서도 국제도서전의 볼륨을 확보한 만큼 독자들의 발길이 한층 많을 것으로 보인다.